

대통령이 지적인 “농지 투기”…전남 땅 10년 새 63% 급등

전국 최고 상승률…전국 평균 1.5%↑ 태양광 투자 등 수익사업 영향 커 농지 전수조사…귀농 문턱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언급한 농지 가격이 전남에서는 10년 새 60%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남지역 농지 임차인 5명 중 1명꼴로는 농지 확보가 어렵거나 제약이 많아 경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5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m당 평균 농지가격은 2만4758원으로, 10년 전인 2015년 1만5156원보다 63.4%(9602원) 올랐다.

10년 전에는 1ha(3025평)의 농지를 사는데 1억5200만원이 들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2억4800만원을 내야 한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가격이 5만2702원에서 5만3518원으로 1.5%(816원) 올랐는데 전남은 63.4% 뛰었다. 상승지역은 전남에 이어 세종 58.6%, 전북 51.3%, 충북 33.1%, 경기 30.8%, 제주 24.5%, 강원 22.0%, 충남 12.0% 등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전남 논 m당 평균 거래가는 1만6025원에서 2만3382원으로, 45.9%(7357원) 올랐다.

지역별로 가격 상승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밭은 71.9%(1만4662→2만5199원), 과수원은 80.4%(1만7458→3만1487원) 인상됐다.

지난해 전남 농지 가격은 지역에 따라 18만원 가까이 격차를 보였다. m당 농지 가격 최고가는 17만8571원(과수원)으로, 최저가 488원(밭)과 17만8000원(과수원) 차이가 났다.

치솟는 전남 농지 가격은 귀농을 꿈꾸는 예비 농업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전남 농지 거래량은 10년 새 4만1614필지에서 2만7470필지로, 34.0%(1만4144필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논과 밭, 과수원 모두 거래량은 각각 36.5%, 31.9%, 53.6% 줄었다.

한국농어촌공사 '2024년 농지임차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 농지 임차인의 19.7%는 농업에 로사향으로 '농지 확보가 어렵거나 제약이 많아 경작 시작·유지가 어려움'을 꼽았다.

전남지역 평균 m당 농지 임차료는 261.4원으로, 1ha를 빌리는 데 연간 261만4000원이 든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무회의 발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외지인의 농지 소유 실태를 통계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광주 인근 시·군은 농지전용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농지시장은 농지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로,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농지거래 플랫폼 개선을 통해 농지가격과 거래량을 자세히 공개하면 농지 가격 안정성을 높이고 투기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농산물 가격이 저평가된 탓에 농민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농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태양광 등 다른 수익사업에 늘리는 부재지주(不在地主) 때문에 농지 가격이 올랐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 등으로 묵히는 땅을 국가가 사들여 전업농에 합리적인 가격에 나눠주면 청년·예비 농업인의 문턱이 낮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5·18헌법전문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5·18단체와 우원식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김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5·18 헌법 수록, 더는 미룰 수 없다”…6·3 지방선거 동시 투표 촉구

개헌추진위, 국회서 국민결의대회 우원식 의장·여야 지도부 한목소리 “내란 청산 민주주의 근간 세워야”

광주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내란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공화국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헌법전문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개헌추진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가했다.

개헌추진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5·18헌법 이 아직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헌법적 공백’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발생한 12·3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5·18헌법을 헌법에 담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다수가 개헌과 5·18 수록에 찬성하고 있고, 대통령도 수차례 약속한 사안”이라며 “헌법 시행 38주년을 맞은 오늘, 5·18헌법을 전문에 새기는 것이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힘을 실었다.

김기정 광주시장 역시 “5·18정신으로 계엄의 밤

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며 “원포인트 개헌은 전두환과 윤석열로 이어지는 내란 역사를 청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기본소득당 등은 개헌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부당선거 음모론에 빠져 역사적 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즉각적인 국민투표법 통과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구(2·28), 제주(4·3), 부마항쟁 등 전국 민주운동 단체들과 연대하며 5·18 헌법 수록을 위한 전국적 공감대를 넓혀왔다.

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5·18 역사 왜곡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평 예덕리 고분군’ 국가문화유산된다

영산강 유역 마한 고분문화 유적

고대 영산강 유역에는 마한이라는 정치체가 고유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토대를 일궜다. 당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이 고분군이다.

특히 3~5세기 영산강 지류인 고막일천 상류에 조성된 ‘함평 예덕리 고분군’은 마한 고분문화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유적이다. 1994년 발굴 조사를 시작한 이래 모두 14기 고분을 확인했다. 사다리꼴 모양의 분구(무덤)를 비롯해 당대 생활상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유구, 유물이 출토된 것.

마한의 대표적 무덤군인 ‘함평 예덕리 고분군’이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25일 ‘함평 예덕리 고분군’의 사적 지정을 예고했다. ‘만가촌 고분군’으로도 알려진 ‘예덕리 고분군’은 규모나 수량 면에서 다른 곳과 비교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구형태나 매장 시설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는데다 조성 시기도

빠르다. 축조 방식에 있어서도 영산강 유역 대형 고분의 특징이 잘 반영돼 있다. 개별 무덤 인근에 새 무덤을 조성하는 ‘수평’과 기존 무덤에 새 무덤을 만드는 ‘수직’ 방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마한의 전통적 다장(多葬)을 비롯해 목관 중심에서 옹관으로 병존·확대되는 과정 등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임영진 호남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은 “함평 예덕리 고분’은 우여곡절이 많은 고분이다. 90년대 부분 조사를 통해 마한의 상징적인 분구묘 가운데 가장 특이한 평면형태를 가진 고분으로 주목돼 왔다”며 “일반적인 분구묘는 방형이나 원형이지만 함평 예덕리 고분은 긴 사다리꼴을 띠고 있고, 분구가 수평으로 확장되면서 가족 추가가 이루어진 전형적인 분구 확장형 고분”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응급실 뱅뱅이 막는다

▶1면에서 계속

광주시는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이번 시범사업에 접목해 운영한다.

이 플랫폼은 지역 내 21개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가상 병원처럼 묶어 병상과 전문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전남과 전북 지역의 이송 체계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전망이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후 광역상황실이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정 병원을 선정해 현장에 안내하며, 신속한 선정이 필요한 경우 구급센터와 협력해 대응한다.

정적 시간 내에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광역상황실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이송하도록 강제한다.

이때 발생하는 전원(병원 간 이동) 업무는 119

구급대가 전적으로 지원해 병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반면 중증증 이하 환자는 사전 약속된 지침에 따라 구급대가 즉시 이송하게 된다.

효율적인 이송을 위해 정보 공유 체계도 고도화된다. 구급대는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를 병원과 상황실에 신속히 전달하고, 병원은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의료 지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최신화해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h3>상속한정승인공고</h3> <p>• 피상속인: 망 김용선(651005-1XXXXXX) • 최후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팔매대로191번길 17-3 (산수동) 피상속인 망 김용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6년5월18일로 신청하여 2026년 2월 1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 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26일 • 상속인: 1. 김도유(930209-2XXXXXX)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21, 1809호 (화곡동, 미래안포배) 2. 김근권(941214-1XXXXXX)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166 • 신고기간: 2026. 2. 26. ~ 2026. 5. 8.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김도유의 주소</p>	<h3>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h3> <p>• 피상속인: 망 김광호(290830-2XXXXXX) • 최후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팔매대로 303동 304호 (중동, 동광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광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5년5월5일로 신청하여 2026년 2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26일 • 상속인: 1. 박홍규(541103-1XXXXXX) 광주광역시 동구 팔매대로 303동 304호 (중동, 동광아파트) 2. 박광호(571214-1XXXXXX) 부산 부산진구 성지8로14길 14 (변지동) 3. 박선영(600101-2XXXXXX) 남양주시 순화동로 382, 2205동 1601호 (일대동, 별사당마을2-2단지) 4. 박숙희(630706-2XXXXXX)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25, 405동 201호 (신동, 미사강변리뷰힐스테이트) • 신고기간: 2026. 2. 26. ~ 2026. 5. 8.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박홍규의 주소</p>
<h3>상속한정승인공고</h3> <p>• 피상속인: 망 권준원(760606-1XXXXXX) • 최후주소: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97, 511동 601호 (중동, 샬레마을 5단지) 피상속인 망 권준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6년5월4일로 신청하여 2026년 2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26일 • 상속인: 1. 권재홍(641201-1XXXXXX)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7길 15-11, 101호 (목동, 샬레하이츠빌라) 2. 권중학(670311-1XXXXXX) 광양시 동해길 35, 13동 202호 (금호동, 한빛아파트) 3. 권윤영(710315-1XXXXXX) 광양시 함안로 30, 104동 1203호 (중동, 광양신아파트) • 신고기간: 2026. 2. 26. ~ 2026. 5. 8.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권재홍의 주소</p>	<h3>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채출공고)</h3> <p>주식회사 선강(이하 “갑”)과 주식회사 조은문신(이하 “을”)은 2026년 2월 25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정보통신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합병 제530조의3에 제정된 외적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금을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과 “을”의 해당 주주에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갑” 주식회사 선강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75-1, 2층(오차동) 대표이사 강 선 “을” 주식회사 조은문신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순지남로길 249, 2층 2호 대표이사 주 영 희</p>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